

한우자조금 소식지

www.hanwooboard.or.kr

2016년 2월호

기획

한우 사육두수 수급 전망과 대응방안

자조금 소식

마블링 부정적 보도에 한우농가들 분노

농장탐방

국무총리상 수상 유일한농장의 유종대 대표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2월호

기획

- 04 한우 사육두수 수급 전망
- 07 젓소 대리모, 보조금 지원 막아야

원로초대석

- 08 이규석 초대 전국한우협회장

자조금 소식

- 10 마블링 부정적 보도 긴급회의
- 11 최창본 교수 기고문
- 12 한우산업 발전 위한 한우 원로 간담회
- 14 한우자조금·한우협회 시무식 등

한우 이모저모

- 16 한우 종모우 17두 생산
- 17 출하지연 문제 해결 방안

농장 탐방

- 18 유일한농장의 유종대 대표

판매점 소식

- 20 한우 알뜰매장 '고산미소'

한우시황

- 22 2016년 한우 도매가격 전망

대동牛지도

- 24 설렁탕의 고향, 서울

포토 뉴스

- 26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2016. 2 통권 제124호

비매품

발행일 2016년 2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인쇄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수급 전망과 대응방안은?

2017년 사육두수,
적정 사육두수에 한참 못 미쳐...

2017년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는 317만두. 하지만 실제 전망 수치는 250만두로, 적정 두수에 한참 모자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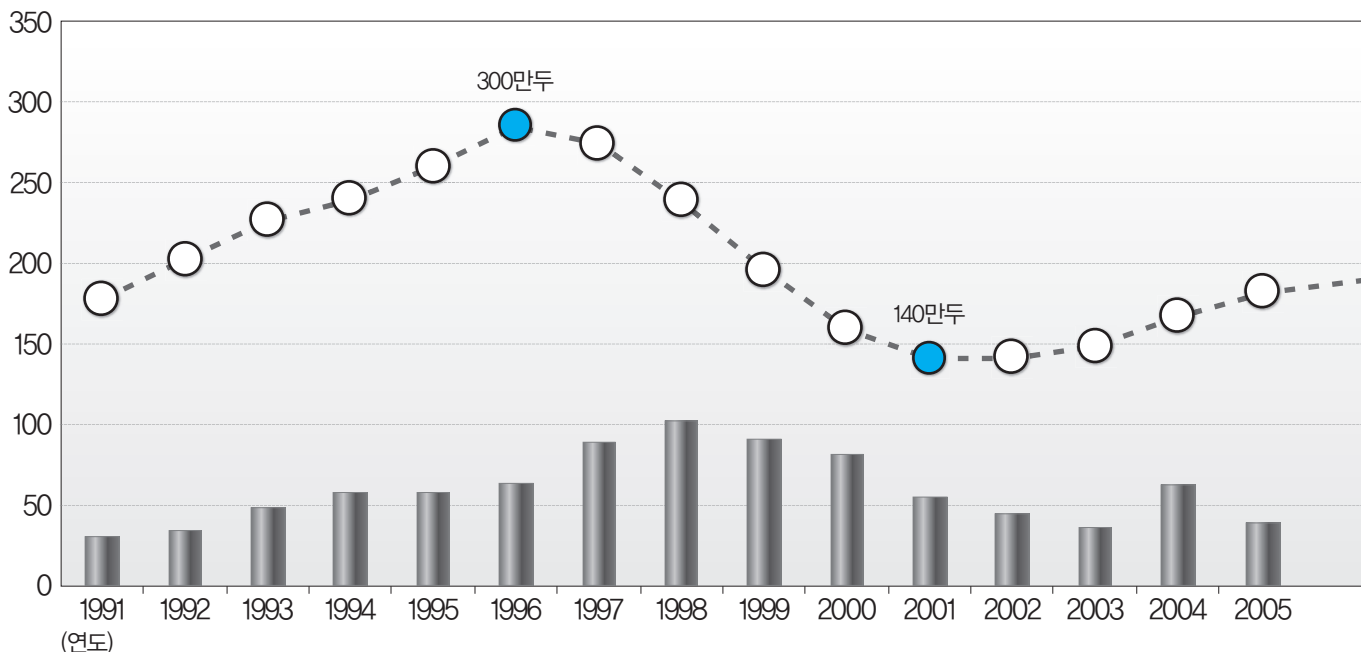
이는 한우자조금에서 2012년 실시한 ‘한우 적정 사육두수 설정모델 개발연구(GS&J인스티튜트)’ 결과다. 2017년 국민 1인당 한우고기 수요량이 연간 4.7kg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을 때, 한우 도축두수는 85만두가 돼야 한다는 가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 가정이 실현되려면 2015년에는 1세 이상 암소두수가 145만두, 송아지 생산두수가 89만두가 돼야 한다.

한육우 사육두수와 도축두수 변화

1991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177만두였다. 그 후 1996년에 284만두로 증가했다가 소값 하락과 2000년 생우수입 개방을 앞두고 한우사육이 위축되어 1997년 274만두, 1998년 238만두, 1999년 195만두, 2000년 159만두로 꾸준히 감소했다. 급기야 생우 수입이 개방된 직후인 2001년에는 140만두로 급감했고 한우 도축두수도 55만두로 크게 감소했다.(천두 단위 반올림)

하지만 생우수입 개방 여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 2002년부터는 사육두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167만두로 늘어났으며 한우 도축두수는 33만두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2006년 202만두, 2007년 220만두, 2008년 243만두, 2009년 263만두 등 매년 20여 만두씩 증가해 2010년에는 사육두수가 292만두까지 다시 증가했고 한우 도축두수도 60만두로 늘어났다. 2012년 사육두수가 306만두로 고점을 나타낸 후 또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 292만두, 2014년 276만두, 2015년 266만두로 매년 10만두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 만두) **한우 사육, 도축두수 추이**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2014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암소도축률이 47% 넘으면 사육두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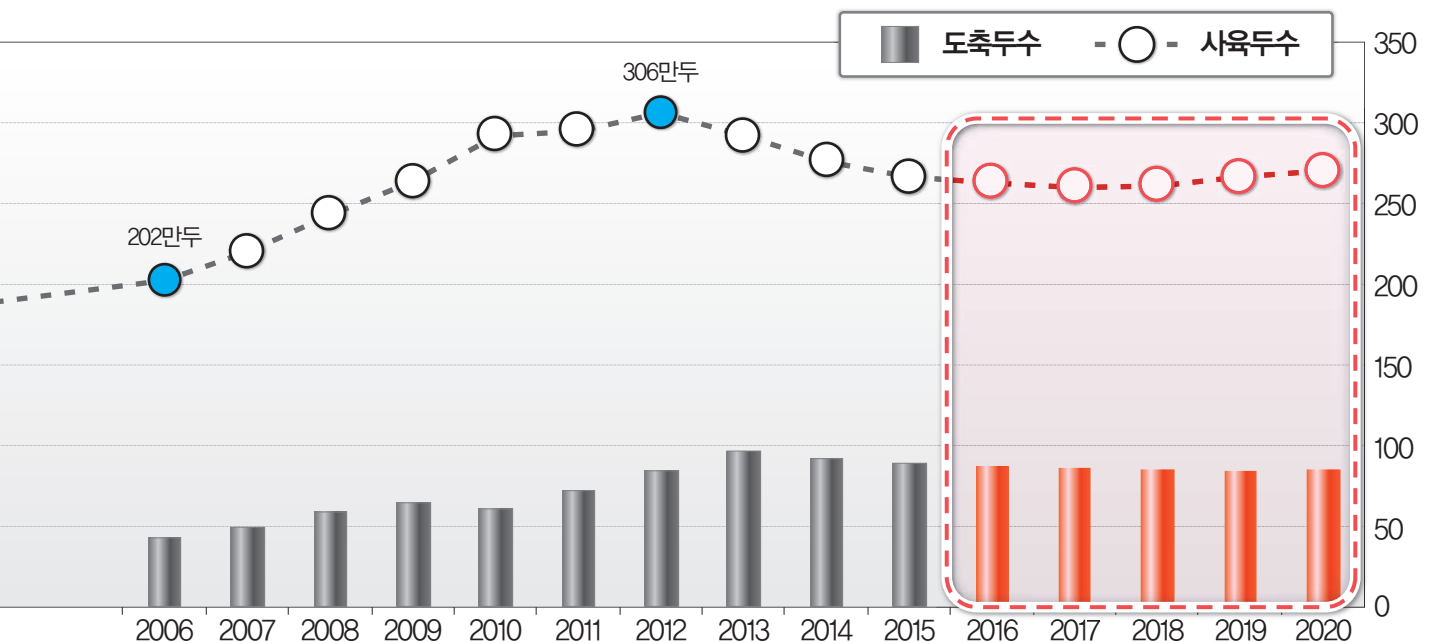
한우 사육두수는 암소도축률과 반비례 관계다. 암소도축률이 45% 정도일 경우 사육두수가 큰 변화없이 유지되지만, 50% 이상이 되면 1년 후부터 전체 사육두수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43% 이하로 떨어지면 1년 후부터는 전체 사육두수가 증가한다.

실제로 2011년 한육우 사육두수가 295만두였을 때 암소도축률이 40.9%(72만두 중 29만두)를 기록했으며, 2012년 사육두수가 306만두로 증가하자 암소도축률은 51.9%(85만두 중 44만두)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 사육두수가 292만두로 감소하며 암소도축률은 53.2%(96만두 중 51만두)로 상당히 높았다. 이 영향으로 2014년에는 사육두수가 276만두로 감소했으며 암소도축률은 48.7%(92만두 중 49만두)로 약간 낮아졌다. 그리고 다시 2015년도 사육두수는 266만두로 감소했고 암소도축률은 46.8%(88만두 중 41만두)로 조금 더 낮아졌다. 하지만 사육두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전히 암소도축률이 높은 편이다.



사육두수 수급조절은 3년 이상 내다봐야

앞으로 암소도축률이 45%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도 앞으로 1년여 기간이 지나야 한우 사육두수 감소세가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태어난 송아지를 비육시키는 기간인 30개월을 더한다. 즉, 원만한 한우두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최소 2년, 한우고기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4년을 계획해야 한다. 상당히 긴 기간을 미리 내다보고 미래를 전망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의 수급조절은 상당히 어렵다.





가임암소 130만두 미만이면

암소 비육 자제해야 할 때

사실 한우육 수급상황만 놓고 되돌아봤을 때 2015년 초부터는 암소비육을 자제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암소 비육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년 후 송아지 값이 높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암소도축률을 낮추지 않으면 200만두 이하로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처럼 한우 가격이 높을 경우 암소비육이 꾸준히 발생하며 송아지 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

1998년 7월, 정부는 한우산업발전 종합 대책과 함께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고 이후 다산장려금까지 지급했다. 소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암소번식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 초산이나 2산 이후의 암소를 비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소가 3산 이상일 경우 10만 원씩 지급하다 2001년 10월부터 20만 원(3산), 30만 원(5산)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후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다산장려금은 폐지됐다.

2012년 한우 사육두수가 306만두로 증가하자 2013년과 2014년도에는 한우수급 조절을 위해 한우자조금사업

등을 통해 암소 도태장려금을 두당 20여만 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 한우사육두수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우고기 소비시장 어렵게 확보했는데...

2007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산 소고기 수입 중단과 함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며 한우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한우 도축두수가 96만두와 92만두에 이를 정도로 한우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15년 한우 도축두수가 88만두로 감소했고, 한우공급이 부족해지자 한우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개최된 한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한우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가격저항에 부딪혀 한우식당이 수입 소고기식당으로 전환되는 등 한우 소비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우농가들도 한우고기 가격이 높다고 마냥 좋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우자조금사업의 소비홍보 예산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한우 수급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가에 대한 대안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젖소 대리모, 보조금 지원 막아야

젖소와 한우 경계 모호해져 한우 판별 혼란스러워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정란이식 사업은 2002년부터 한우의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본격화됐다. 이후 이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두당 30~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 송아지 가격이 오르며 일부에서는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젖소 대리모'다. 실제로 2004년에는 약 2만 6천여두의 젖소에 한우수정란이 이식됐다. 하지만 이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봐야 할지 젖소로 봐야 할지 경계가 모호해진다. 한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미소와 어미소가 이력제에 한우로 등록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는 '젖소 대리모'가 한우이력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한우산업의 원로 이규석 초대 전국한우협회장

“40년 넘게 한우를 사육해 왔는데 아직도 한우가 너무 좋아요.
다시 태어나도 한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우산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전국한우협회 초대회장을 맡았던 이규석 전 회장이다. 그는 수입생우 저지 투쟁 등을 통해 한우산업을 발전시켜온 주역 중 한 사람으로, 현재 전국한우협회 고문을 맡고 있다.

한우자조금 소식지에서 새 인터뷰 코너의 첫 인물로 이규석 고문을 만났다. 기자는 이규석 고문이 전국한우협회 초대회장으로 있을 당시 한우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이 고문과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도 하다.

2016년 새해가 밝은 1월 2일 저녁, 대구 팔공산 기슭에서 이 고문을 만났다. 한우 고기와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추억에 젖어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113번지 소재 농장에서 이 고문을 다시 만났다. 그는 아침 일찍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다.

기자: 이제 이 고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웃음)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 고문: 그냥 한우 키우면서 잘 지내지. 가끔 사람들 만나서 바둑도 두고.

기자: 무작정 한우 두 마리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게 한우와의 첫 만남이라고 들었어요.

이 고문: 축산이 하고 싶었어. 대구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축산을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시면서 반대하셨지. 어쩔 수 없이 이곳 팔공산에 맨몸으로 들어와서 움막을 짓고 토끼, 염소 등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1975년쯤인가, 어렵게 후계자 자금을 받아 한우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두 마리를 입식해 소를 키우게 됐어. 나중에 그 황소를 데리고 우시장에 가려는데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웃음) 소하고 한참 씨름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66

아름다운 한우 목장을 만들고 싶어.
규모는 작아도 되니 천천히 준비하려고. 99



소가 등에 땀을 흘리더라고. 그렇게 황소를 끌고 15km쯤 되는 산길을 지나 우시장에 도착하니 아침 7시였던 기억이 나네.

기자: 한우협회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 고문: 내가 회장을 할 때만 해도 한우협회가 열악한 상황이었어. 사무실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직원도 두세 명뿐이었지. 그런 와중에 생우 수입 문제가 터진 거야. 한우농가들과 함께 생존권을 걸고 반대 투쟁을 해서 어렵게 생우 수입을 막아낼 수

있었어. 그 결과 한우산업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고문: 아름다운 한우 목장을 만들고 싶어. 규모는 작아도 되니 천천히 준비하려고. 산속에서 소만 키우던 젊은 시절처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들 둘 내외와 손자들을 합하면 열 명이 되는데, 영농조합 형태로 함께 한우농장을 운영할 계획이야. 그리고 한우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는 거지.

기자: 저도 나중에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땅 좀 빌려주실 거죠?

이 고문: 그럼 당연하지(웃음) 



마블링 부정적 보도에 한우농가들 분노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긴급회의 통해 대응 방안 논의

19일에 방송된 KBS <TV시사기획 창> '투 플러스 알고 드 십니까?'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분노가 거세다.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소고기 등급판정의 과정과 문제점을 다루며 미국, 호주의 등급제와 비교했다. 더불어 현행 등급제가 소고기 생산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소고기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식의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선호도 테스트에서 1++등급 소고기가 더 낮은 등급의 소고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1++소고기의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논란을 만들기엔 충분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들의 항의 전화를 56통이나 받았다. 설 대목을 앞두고 있어 방송으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침에 방송 관계자와 통화해 관련 보도가 추가로 방송되려던 것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급기야 몇몇 한우농가들은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관계자들에게 "이런 방송이 나올 때까지 막지 못하고 뭘 했느냐"며 항의 전화를 했다. 이에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20일 새벽부터 학계와 한우자조금 협력업체, 전문지기자들을 긴급하게 소집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학계 최창봉 교수와 협력업체들은 방송 관계자 특히, 기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지 기자들은 "비싼 한우고기 대신 호주산이나 미국산 수입육을 먹으라는 방송같았다. 이번 방송은 객관적이지 못한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방송의 기획의도를 파악하고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국한우협회에서 방송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한우고기 근내지방을 낮춰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것

KBS <TV시사기획 창>

‘투 플러스 알고 드십니까?’를 보고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최창본 교수

ㄴㄴ

방송을 본 후의 느낌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아무리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ㄴㄴ

나도 모르게 방송 시간에 맞춰 채널을 고정시킨 건 20여
년간 한우와 한우고기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는 대학교
수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 방송을 본 후의 느낌은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아무리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
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방송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라며 실험자들의 눈을 가린
채 실험을 진행한다. 블라인드 테스트란 실험에 참가하
는 사람이 실험 대상물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
는 과학적인 실험이다. 이름 그대로 실험자의 눈을 가리
고 하는 실험이 아니다. 방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험
대상물(1++등급, 1등급 및 2등급 한우고기), 굵는 온도,
통계처리 등은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운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2등급 한우고기는 건식숙성을 한 것이었다
고 하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임상실험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이 많은 소고기가 사람
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방이 적은 고기
와 비교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두부를 먹인 그룹과
1++등급 한우고기를 먹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
써 줄지에 주제가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비교하는
실험이 돼 버렸다. 한 끼에 140g씩, 하루 세 끼 총 420g의
두부와 한우고기를 먹인 후 혈액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들이 애처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냥 한우고기는 맛도 없고 건강에도 나쁘니 청정한 풀
을 먹여 키운 수입 소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시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다. 현행 우리
나라 소도체 등급제 중, 육질등급에서 중요한 요소는 근
내지방도다. 소고기 내 지방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등급
제를 개정하자는 게 이 방송의 요지인 것 같다.

하지만 먼저 현행 우리나라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에 왜
근내지방도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됐는지를 이해해야 한
다. 소고기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 논문과 자료에서 근
내지방도가 소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소고기의 근내지
방도는 맛과 높은 관계가 있다는 논문으로 이를 뒷받침
했다.

무조건적으로 한우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근내지방은
높이되 피하지방 등 불가식 지방을 줄이기 위한 개량 및
사양 기술 개발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 ‘소고
기는 좋아하지만 축산을 싫어한다’는 아이러니한 인식
도 바뀌어나가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은 우리 축산인 모두의 몫이다.



한우산업 발전 위한 한우 원로 간담회 한우 농가들이 하나로 뭉치는 구심점 역할해야

한우 원로 간담회가 지난해 12월 22일 문경새재 리조트에서 원로 12명과 한우지도자,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로 열렸다.

이날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한우산업은 이미 꽤 큰 규모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의 한우농가 수는 9만 2천 명이고 전후방산업 종사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말하며 “한우산업의 향후 과제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한우산업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원로 명단은 이규석 전국한우협회 초대 회장, 남호경 한우협회 전 회장, 이강우 한우협회 전 회장, 김명재 한우협회 전 부회장, 이부충 한우자조금 초대 의장, 우영목 한우협회 전 부회장, 임관빈 한우협회 전 부회장, 이명수 한우자조금 전 감사, 이두원 한우협회 전 부회장, 김권호 한우협회 전 제주도지회장, 조위필 한우협회 전 부회장,

한영섭 한우자조금 전 의장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간단히 정리했다.

- △ **이규석 초대 회장:**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농가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힘을 하나로 모아 한우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길 바란다.
- △ **남호경 전 회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 등급제 개선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기업이 축산업(한우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수입생우를 막아냈던 정신으로 의기투합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
- △ **이강우 전 회장:** 한우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야 할 때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일에 먼저 쓰여야 한다.



△ **이부총 전 의장:** 한우협회가 하나로 뭉쳐 한우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우 이력제를 통해 사육두수 등을 잘 관리해야 한우산업 파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우영목 전 부회장:** 한우를 홍콩에 수출하게 되어 기쁘다. 외국에 한우를 수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우 등급판정 시 등심을 절개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다른 부위로 바꾸도록 검토해야 한다.

△ **임관빈 전 부회장:**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우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하면 한우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명수 한우자조금 전 감사:** 한우협회 회원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영월한우영농조합이 정육식당의 면세 관련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은 의미가 크다.

△ **김명재 전 부회장:**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협의 생축장을 전식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이두원 전 부회장:** 한우협회는 운동결사체로 두고 한우조합은 경제사업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 한우협회 창립 20년사 발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김권호 전 제주도지회장:** 한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마케팅에 신경 써야 한다.

△ **조위필 전 부회장:** 한우농가도 한우산업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속 소싸움의 경우 3차 산업으로 지역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영섭 전 의장:** 한우업계에도 헬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김홍길 회장:** 브루셀라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하고, 수입조사로 쿼터를 실수요자 중심(한우협회)으로 바꿔 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실장:** 한우는 충분히 수출 경쟁력이 있다. 조사로 생산이 많은 지역과 수입쿼터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브루셀라 문제는 전문가와 생산자 회의를 통해 검토하여 방역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보겠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 시무식 열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한우 지키는 일에 임해주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월 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이근수 위원장은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11개월 정도 됐다. 모든 직원이 서로 격려하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독립운동을 하듯, 한우산업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직원들은 친밀감 상승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난다.

이어 김홍길 회장은 “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을 구축해 농가들의 소 출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우협회 시군지부의 조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우 농가에서 수입 조사료 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 협회에 배정된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늘릴 것이라 밝혔다. 이날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전 직원은 새해의 활기찬 시작을 다짐하며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한우자조금 전문지 기자간담회 “따뜻하게 쓴소리 해달라” 다양한 의견 오고 가



한우자조금은 지난 21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한우자조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근수 위원장은 “취임 후 한우정책연구소 설립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등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한우홍보 자문회를 신설해 한우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마블링 부정적 방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농가보다는 소비자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등에 대해 의견과 답변이 오갔다. 이근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한우를 먹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한우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자조금사업 편람 개선 회의 열려 앞으로의 일정과 비용 정산에 대해 논의해

한우자조금사무국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일 한우협회 시군지부 사무국장장과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자조금 사업 편람 개선 회의를 갖고 정산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자조금사업 시행의 기본원칙과 비용 정산의 기본원칙, 정산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또한, 시군지부 등에서 한우자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생긴 애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다함께 개선 방향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한해 한우교배 책임질 보증씨수소 17마리 선발 2월부터 정액 공급... 한우 유전능력 높아져 농가 소득 증가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복 교수)를 열고 2016년 상반기에 공급할 한우 보증씨수소 17마리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한우 보증씨수소는 KPN1006, KPN1018, KPN1022, KPN1024, KPN1029, KPN1030, KPN1032, KPN1034, KPN1035, KPN1038, KPN1041, KPN1042, KPN1044, KPN1046, KPN1047, KPN1048, KPN1049로 총 17마리다.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의 유전능력을 고려해 선발했다.

선발한 보증씨수소 중 도체중 유전능력이 가장 우수한 소는 KPN1046으로, 이 씨수소를 사용해 자손을 생산할 경우 현재 한우 전체 평균 무게보다 약 13kg 높은 한우가 탄생한다.

등심단면적 유전능력이 가장 우수한 씨수소는 KPN1032로 유전능력(EPD1)은 약 +5cm²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KPN1030이 유전능력(EPD) 약 -2mm로 가장 우수했고, 근내지방도는 KPN1006이 유전능력(EPD) 약 +1.4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선발한 보증씨수소 17마리 중 14마리는 한우 육종농가(경기 2, 강원 1, 경북 2, 전남 2, 전북 5, 제주 1)와 육종센터(강원축산기술연구소 1)에서 생산돼, 개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육종농가의 한우 유전능력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정액은 2016년 2월부터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를 통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보석 가축개량평가과장은 “농가의 개량 목표, 암소의 유전능력, 도축시장현황 등을 고려해 정액을 선택하고 교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노중환 소장은 “도체중, 등심 단면적 등도 체형질이 크게 개량된 씨수소들의 정액을 공급할 수 있어 기쁘고, 이 정액을 이용해 농가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개량사업의 하나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당대와 후대검정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평가를 실시한 뒤, 가축개량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씨수소를 선발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보증씨수소 정액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우 교배 계획 길라잡이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www.nias.go.kr-연구활용-농가활용프로그램)에서 다운 가능), 한우리 시스템(hanwoori.nias.go.kr)을 발간 운영하고 있다. 새로 뽑힌 씨수소의 자료는 2월부터 제공한다. 

한우 출하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나왔다

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 구축하고 출하 신청 접수 중

전국한우협회가 전용 도축유통망을 구축해 한우 출하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우협회는 유통 사업 기능을 강화해 출하예약제 등에 소외된 농가들의 출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전용 도축유통망 사업을 추진해 지난 1월 7일부터 회원 농가들의 출하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시군지부로부터 물량을 신청받은 한우협회는 전용 도축장으로 지정된 협신식품과 박달재 LPC에서 도축 작업을 마친 뒤 협회 인증마크를 부착해 초원육가공과 동양플러스에 공급해 유통시킨다. 유통업체는 협회를 통해 출하 농가들에 C등급을 제외한 1+등급과 1++등급마다 각각 8만 원과 10만 원의 등급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물 가격 정산의 경우 농협 4대 축산물공판장(부천, 음성, 고령, 나주) 가운데 부산물 합계 최고가를 정산해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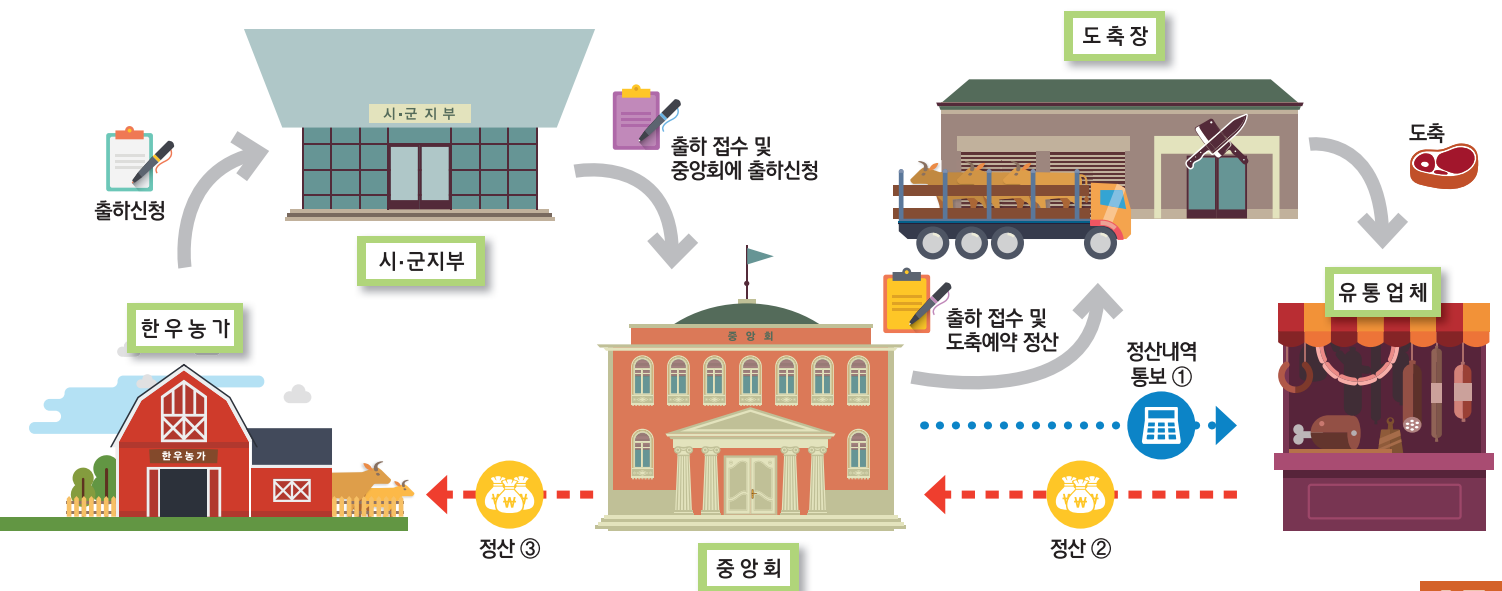
한우협회는 이번 도축유통망 사업이 출하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농가들의 적기 출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불만과 불신이 높은 소부산물 가격을 4대 공판장 최고치로 적용받게 돼,

협회로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 도축장의 부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는 파급 효과까지 예상된다.

한우협회는 일 20~30두 물량을 출하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를 점차 확대 정착시켜 협회 전용 도축유통물량을 향후 월 1,000두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한우의 전체 판정두수 중 공판장 출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출하예약제 문제와 부산물 가격 정상화, 상장 수수료 인하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우협회의 전용 도축유통망 사업은 출하예약제에 소외된 농가들의 출하적체와 공판장별로 다른 부산물 가격 문제 보완은 물론 유통단계 축소 등으로 한우 농가들의 수익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우 농가로서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어...

한우능력평가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유종대 대표

“20년 동안 묵묵히 한우 개량이라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 왔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의미있는 상이다.” 이는 제1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북 정읍시 유일한농장 유종대 대표의 말이다.

25년 전 서울서 귀농하여 한우 한두로 시작

유 대표가 한우를 처음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25년 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정읍시 입암면으로 귀농해 한우 암송아지 한두를 구입하면서 부터다. 유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농장은 현재 한우

번식우 150두, 비육우 60두, 송아지 70마리 등 전체 280두를 일관사육하고 있으며 출하 성적은 육질 등급 출현율이 1+이상이 85%이고 1++도 55%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읍단풍한우회 덕분에 개량의 중요성 일찍 눈떠

정읍단풍한우회는 1995년 한우 고급육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커지는 시기에 조직됐다. 유 대표는 이 시기 단풍한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양한 한우 관련 교육에 참여하며 지식을 습득했다. 우수한 정액뿐만 아니라 한우 암소 개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찍 인식한 것이다.



1 유일한농장의 보증씨수소
2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는 유종대 대표
3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기념사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유 대표는 전국의 한우 농가들이 고급육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제1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유 대표는 인생을 살아가며 제일 잘한 일은 한우를 사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육종농가로서 수억 원 가치의 보증씨수소 생산

유일한농장은 20년 넘게 한우 암소 개량을 꾸준히 해 온 덕분에 보증씨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한우육종농가(전국 104개 농가)로 선정돼 후보종모우를 생산한 데 이어 KPN1046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됐다. 이 보증씨수소는 선발된 보증씨수소 중 도체중 유전능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사양관리

유일한농장의 송아지는 생시체중이 크다 보니 송아지 폐사가 거의 없다. 어미소의 건강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송아지가 건강하게 태어나 송아지의 폐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암소의 능력이 먼저 뒷받침돼야 좋은 정액을 사용했을 때 우수한 송아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암소 개량 시작하라

유 대표는 한우 사육을 통해 성공하기를 원하는 한우 농장이라면 “한우 암소 개량에 매진해야 한다. 아직도 암소 개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더불어 “질병이 없는 청정화 농장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질병은 한우 사육 농장에서 생산성을 저하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

“이런 한우 직판장 보셨나요?”

한우 농가들 소값 하락해도 손해 걱정 없어, 한우 알뜰매장 ‘고산미소’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사료값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농가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한우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생산비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 한우 농가들에게는 아마 꿈같은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런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한우 농가 모임이 있다. 바로 전북완주한우조합이다.

전북완주한우조합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일반 정육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정육식당을 2013년 개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육식당의 월 매출이 8억 원이 넘을 정도이니 소위 ‘대박’이 난 것. 하루에 한우 세 마리, 연간 1천 마리 이상을 판매하는 셈이다.

높은 매출의 비결은 바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맛에 있다.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를 직접 임·도축하여 판매해 유통비가 들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정육식당을 통해 회원들의

한우를 ‘잘’ 팔아주는 것이 조합의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 하기보다는 ‘적자만 나지 않을 정도’까지 가격을 낮췄다.

한우 등심 먹어도 1만6천 원

정육식당에서는 최근 한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임에도 한우 1등급 구이용 등심을 6,670원(100g)에 판매하고 있다. 채끝, 부챗살, 치마살 등 특수부위도 7,500원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여기에 채소와 반찬 등 상차림 1인당 3천 원. 한우 등심 200g을 먹어도 1만6천 원이면 충분하다 보니

1





- 1 한우 알뜰매장 '고산미소' 본점 전경
- 2 한우를 구워먹고 있는 손님들
- 3 인당 3천원이면 상차림이 가능하다
- 4 많은 손님이 이용 가능한 넓은 주차장

자연스럽게 손님이 늘어났다. 손님이 많아 가격을 낮추어 대량 판매하는 박리다매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완주 정육식당의 진가는 2014년 한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해 한우 농가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발휘됐다. 이 직영점 운영을 통해 회원 한우 농가들에게 생산비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줬던 것이다.

정육식당 성공 뒤있는 알뜰매장

완주 정육식당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한우 자조금 한우 알뜰매장 1호점인 고산미소 한우직판장을 열었다. 이곳 역시 조합 자체 자금과 완주시의 로컬푸드사업 지원금,

한우 알뜰판매 지원금 등을 통해 원가 부담을 줄였다.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총무이사는 “한우 농가들이 2012년부터 3년 간 한우 가격 폭락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통단계를 줄여 한우 판매에 직접 진출했던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매장 관계자는 “알뜰매장을 한번 방문한 고객은 저렴한 가격에 놀라고 깊은 한우 맛에 다시 한 번 반하며 단골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장소도 넓은 데다 고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단체손님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한우 알뜰판매장 1호점이 소비자들로부터 맛있는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정적으로 한우 소비를 늘려나가며, 한우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한우 농가의 생산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안전장치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6년 한우 도매가격 전년대비 강세 전망



사육 전망

-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 지속 예상
· 2016년 사육 두수는 전년 동기(268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263만두, 2017년 260만두까지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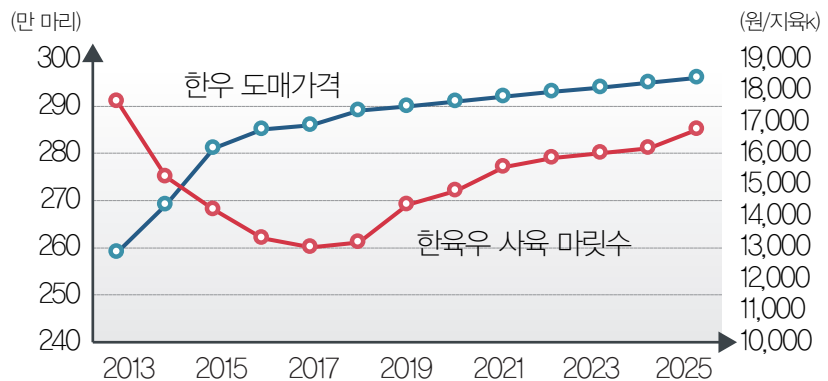
공급 전망

- 2016년 국내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사육 두수 감소로 2016년 도축은 전년보다 6.0% 감소한 24만 톤으로 전망. 2019년(22만 5천 톤)까지 감소 예상.

가격 전망

- 2016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2016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5년 1만 6,284원(583만 원/600kg 환산)보다 2.5% 상승한 1만 6,691원(598만 원)으로 전망. 또한 2017년에는 1만 6,917원(606만 원), 2020년 1만 7,465원(626만 원)으로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도매가격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6> 중 '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참고.

* 사육 두수 전망치는 각년도 12월 1일자 기준임.

[1월 한우가격 및 출하동향]

* 1월 25일 기준

구분			평년 (’10~’15)	2015년		2016년		대비(%)	
				’14.12월(A)	1월(B)	’15.12월(C)	1월(D)	C/A	D/B
도축두수(두)			882,436	81,783	69704	74,554	76769	△8.8	10.1
경매두수(두)			435,604	45,450	37031	42,153	39027	△7.3	5.4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4,168	14204	17,664	18828	24.7	32.6
	거세우		14,569	14,446	14450	18,262	19429	26.4	34.5
	비거세우		10,624	11,749	12056	15,314	16338	30.3	35.5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3,910	4,675	4675	5,842	5787	27.5	23.8
	송 아 지	암	1,511	1,808	1808	2,528	2622	47.5	45.0
		수	2,045	2,371	2371	3,050	3214	34.5	35.6
불고기(1등급/kg)			32,690	35,152	35152	41,860	42246	17.6	20.2
등심(1등급/kg)			61,957	64,598	64598	77,450	78290	16.3	21.2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1월 한우농가 소득 추정]

* 1월 25일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21,526	7,736	4,728	3,008
1+	20,054	7,207		2,479
1	18,865	6,780		2,052
2	17,046	6,126		1,398
3	15,157	5,447		719

* 경영비: 2014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728천원/600kg, 통계청)

*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 「한우키우기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렁탕의 고향,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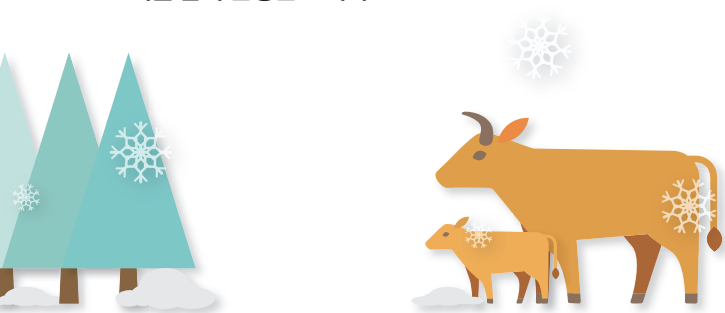
추운 겨울,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으면 없던 기운이 살아나곤 한다.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다. 소의 머리, 뼈다귀, 도가니 등을 푹 삶아 내면 된다. 이 설렁탕의 고향은 서울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 서울 사람들의 상황과 정서를 담아 탄생한 요리다.

팔고 남은 뼈를 고아 만든 한 그릇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다. 고려 시대에는 살생이 금기였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았고,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그 횟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성인 6~7명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소는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우금령(牛禁令)’을 내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 도축을 못 하도록 막았다. 소고기를 먹기 위해 멸절한 소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은 한우 가죽을 전쟁 물자로 보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한우 사육을 정책으로 지정해 한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경성, 즉 서울 내 정육점의 수 역시 함께 증가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는 소고기를 팔고 남은 소뼈와 부산물을 이용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어 냈다. 소의 뼈와 머리고기, 내장 등을 넣고 푹 고아낸 설렁탕이다. 지금에야 설렁탕에 고기가 따로 들어가지만, 이 시기에는 정육 후 부위를 알 수 없게 도려내진 살점과 뼈에 붙은 고기가 전부였다. 이 국물을 옹기장이가 만든 싸구려 독배기에 담고 찬밥 한 덩어리를 넣어 팔았다. 특히 식사 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많이 먹었다.

서울 서민들의 인기 음식으로 자리 잡다

“집에 갈 노잣돈이나 자기 마누라 치마 사줄 돈이라도 설렁탕을 사 먹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이다.” 1929년 발간된 잡지 <별건곤>에 쓰여있는 문장이 그 당시 설렁탕의 인기를 대신 전해주고 있다. 1930년 동아일보 기사의 “떡국, 장국밥, 냉면 등의 음식은 20전에서 15전으로 내리고, 설렁탕은 13전으로 내리기로 했으나 관할 종로서에서 10전으로 내릴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다른 음식보다 저렴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데다 고기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설렁탕은 금세 서민들의 인기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소고기는 지방에서도 꾸준히 소비됐었으나 설령탕은 주로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팔렸다. 도축 후에 나오는 많은 뼈와 잡고기를 넣어 고아낸 이 국물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소비해 줄 곳은 서울뿐이었기 때문이다.

설령탕 이름의 유래가 ‘선농’이라고?

설령탕 이름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선농’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다. ‘선농단(先農壇)’은 인간에게 직접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고대 중국 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농사를 천하의 대본으로 여기던 선조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매년 봄이면 지금의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에서 한해의 풍년을 비는 제사를 올렸다. 제사에 참여한 임금은 직접 밭을 갈고 논에 모를 심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했으므로 커다란 솥에 국을 끓여 밥을 말아 먹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선농단에서 먹은 이 국을 장소의 이름을 따 선농탕이라 칭했고, 이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 지금의 설령탕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 대해 몇몇 음식 평론가들은 반기를 든다. 한국 음식문화 연구에 이바지한故 이성우 교수 역시 이들 중 한 명이다. 그는 1982년 발표한 책 <한국 식품문화사>에서 영조 때 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몽고어 사전 <몽어유해> 속 이야기를 들어 설령탕 이름의 유래를 다시 설명했다. 몽고에서 맹물에 고기를 넣어 끓인 것을 ‘空湯(공탕)’이라고 적고 ‘슈루’라고 읽었는데, 이 이름들이 후대의 곰탕과 설령탕의 유래가 됐다는 것이다. 황광해 음식평론가 역시 한 칼럼에서 “국왕이 백성들과 고깃국을 끓여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동화”일뿐이라고 말했다. “고기는 귀했고 제사에 사용한 고기는 더욱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설 선물은 역시 우리 한우라고 전해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배우 김상중 씨가 직접 청계천광장에 나섰다.

지난 1월 28~29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이해 청계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이근수 위원장도 함께 나와 한우 홍보대사인 김상중 씨와 함께 한우 판매에 동참했다. 이근수 위원장은 “명절시즌마다 매년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는 ‘명품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에도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100% 우리 한우를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위원회는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한우 산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식지 <한우자조금>을 통해 한우농가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도 한마디

축농에 막연한 두려움 갖고
계신 예비 귀농인, 예비 축산
인에게도 좋은 희망을 주는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강창규 님(7604)

해외업체의 좋은 사례나
국내 조합, 기업의 노력상
을 전해주세요. 좋은 본보
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범 님(9107)

외국인이 평가하는 한우
는 어떤지 궁금해요. 외국
소고기와는 다른 한우의
장점! 기사로 알려주세요!

이현정 님(9630)

설문조사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 중 선정되신 다섯 분
께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휴대폰 뒷번호 네자리)

소규모
농가가 있어야 대규모 농
가가 있듯 작은 농장들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내
용을 실어주세요.

황민호 님(2565)

농가를 비롯한 일반
인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코너를 늘리면 어떨까
요? 더 함께하는 한우자
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기학 님(5425)

가로세로 낱말퀴즈

	2			
	1			
	3			

낱말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답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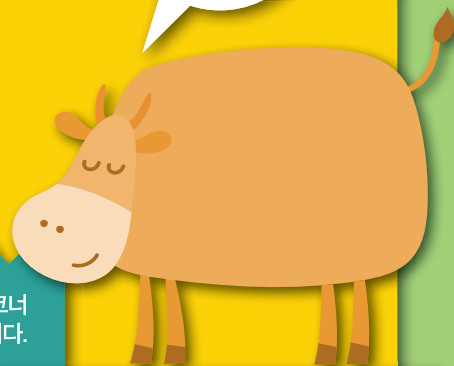
가로 열쇠

1. 소를 사고파는 장터를 일컫는 말.
3. 냇가 등에 있는 작고 둥글둥글한 돌.

세로 열쇠

2.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우농가들
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진행하는 사업
의 이름.

※ 응모하시는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애독자 퀴즈의 정답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www.hanwooboard.or.kr>) 내 소식지 이벤트 코너
혹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어 접속하신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우홍보대사
김 상 중